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안수집사 30명, 권사 50명 피택

지난 주일 공동의회 투표에서 일정기간 교육후, 4월 27일 장립및 취임

교회는 지난 주일 IV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제8대 안수집사와 제36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저녁 찬양예배 후 임시당회로 모여 개표를 한 결과 안수집사 30명, 권사 50명을 피택하게 되었다.

이날 공동의회는 공동의회장 신성중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당회 부서기 서동석 장로의 제안 설명과 투표시 유의할 점 등을 들은 뒤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안수집사 투표를 먼저한 후, 권사 투표를 실시했는데 은혜스러운 가운데 모두 신중하게 기도하며 선택한 사람들을 투표지에 0표로 표시했다.

안수집사는 총유효투표수 2900표(총투표자 2,912표, 무효 5표, 기권 7표)중 삼분의이(1,942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으로, 권사는 총 유효투표수 2,787표(총투표자 2,827표, 무효 35표, 기권 5표)중 다득점 순위로 50명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선출된 안수집사 피택자와 권사 피택자들은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특별 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행하는 고시와 면접을 거친후 4월 27일(화)에 장립식및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교우들은 이번에 피택자들이 주님의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

도해야 되겠고, 피택자들도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교육과 모든 봉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피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안수집사 피택자

강철형	고승균	고종복	권영학	김기철
김승곤	김시주	김인원	김창호	마도원
문광석	박동엽	박성명	박정태	박철구
신재성	안석현	이만기	이석영	이철호
이영일	이태식	임창식	장철환	전용해
정대두	조규호	최정남	홍시오	황현철

•권사 피택자

곽영자	김경순	김남석	김복례	김소선
김숙기	김순배	김순오	김양자	김영자
김옥희	김은영	김인실	김정순	김종열
김춘자	김호녀	나봉녀	남정애	라영실
박갑연	박신춘	박정순	박효지	신소자
심효숙	양명희	엄미봉	유금례	유영자
윤옥중	윤화숙	이경현	이명자	이순자
이경자	이현숙	이현자	임영숙	정운순
조금자	채기순	최상선	최선자	최영자
최정희	한수미	한영덕	홍명순	황중임

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주제로 모인다.

한편 대학부는 2월 1-4일까지 기도원에 서 "절망은 곧 회개입니다"라는 주제로 예배미야서를 강해하는 겨울 수련회로 모일 예정이다.

1993년도, 장학생 선발

교회는 1993년도 전반기 장학생으로 학비 보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장학생선발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있다. 원하는 사람은 아래 요령에 의거 신청하면 장학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1. 신청기간 : 1993. 1. 24(주일) - 2. 7(주일)
2. 신청장소 : 교육국 (교육관 103호)
3.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중등, 고등, 대학, 청년부에 재학중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신학생
4. 구비서류 : 교육국에 문의 할 것

한편 장학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소속 부장과 교구 교역자의 확인을 받아 장학회에 제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금주에 중등3부 겨울수련회 대학부는 2월1-4일, 기도원에서,

지난 1월 15,16일, 중등2부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각 교회학교가 겨울수련회를 시작했다. 금주에는 중등3부(부장 엄필성장로)가 1월 28일-30일까지 갈릴리움에서 장봉생 목사(고등부지도)를 강사로, "빛의 자

◆이 사람을 만나보니◆

'93미주선교찬양대 총진행위원장
이병학 장로



찬양대 발전에 결정적인 기회

이미 <주간충현>에 게재된 바와같이 '93 미주선교찬양대가 발족하여 가동되고있다. 이 찬양대의 총직임을 맡고 있는 이병학 장로를 찾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본다

— '93미주선교찬양대가 왜 조직되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 말해주십시오.

▶ 미국 뉴욕의 기독교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성가합창제가 초대를 받았습니. 6월 27일 카네기홀에서 갖게 되는 이 성가합창제에 이미 영락교회, 행성교회, 금관교회가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성가합창제는 미국내의

한인교회가 참가하고 국내에서 한 교회가 초대되지요. 따라서 그 합창제에 참석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그 외에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의 토론토 등에서 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6월 25일에 출국하여 7월 9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 현재 준비상황은 어떠하신지요?

▶ 참가 신청자가 350여명입니다. 그러나 카네기홀에 설 수 있는 인원은 180여명이지요. 2월 14일까지를 일차 연습기간으로 삼고 오디션을 통해 160여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카네기홀 외의 공연에서는 300여명이 필요한 곳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화합자는 모두 함께 가려고합니다. 3월 초부터 본 연습에 들어가고 6월 초순에는 그동안 연습한 곡을 우리교회에서 일차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번 활동의 의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찬양대원들이 100% 참석하지 못

하여 아쉽지만 목적을 정하고 300여명이 한마음이 됨으로 찬양대 내외의 관심이고 조될 뿐만아니라 절적인 향상도 따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찬양대가 발전하는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또한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찬양대원의 수준향상과 영성훈련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한편 미주내의 교민들, 특히 총현교회 출신 교민들과 서로 교제하며 위로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또한 한국 교회에서의 총현 교회의 위상을 새롭게하기에도 찬양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우리 교회절립 4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에 이런 일들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총현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고 발전적이었지만 찬양대에서는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 총현교회의 찬양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



신중한 선택

지난 주일(1월 17일) IV예배후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제8대 안수집사와 제36대 권사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교우들은 모두 신중하게 자신이 기도 중에 결정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청소년 제자 훈련원 개설 고등부, 자체내에서

교회학교 고등부(부장 최성현장로)는 자체 내에 청소년제자훈련원을 개설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개인진도법 및 성경개론"을 가르칠 예정이다. 훈련기간은 1월 24일 - 3월 14일까지 8주 코스로 매주일 오후 2시 - 4시 40분까지이며 강사는 고등부지도 장봉생목사와 교사들이다. 이런 특별훈련은 청소년 시절부터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훈련을 위해서이다.

원로목사, 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1월 18(월)부터 21(목)까지 명성교회의 신년부흥회를 인도.

2. 당회장 신성중 목사

- 1월 19일 총현교회에서 모인 찬송가공회 모임에 참석
- 1월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전국작장선교회 시무식에 참석

1. 구약을 통한 증명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불신앙의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불신앙의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 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또 당신이 아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대답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의심에서 나왔다고 보다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그분의 입술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2. 실족지 아니한 자, 실족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1:6). 이 말씀도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이고, 실족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부활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실족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실족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이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식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이적, 또는 재림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시몬,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인 로마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보다는 누가 더 낮아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 중헌강단 ■

불신앙의 세계

(마 11:1 - 9)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까”
(마 11:1-3)

신 성 중

〈목사·당회장〉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런 외적인 면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면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실족하게 됩니다. 네번째로 세속주의자들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외적인 면에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는 자의 받을 축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3.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증거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마 11:7)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람이 불어도 갈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박해와 핍박을 말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에 있어서 강직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고 했습니다. 궁궐에 있는 대신들은 부드러운 색 깔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 당시의 말라기에서 선지자는 팔

나고 그들은 4,5백년 동안 선지자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최초로 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11)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중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천하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구약에 속한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 심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속한 선지자들은 그 당시의 위대하긴 했지만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는 천국의 문이 열리고 신약시대가 전개되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폭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담을 헐고 달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침노하는 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

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마 11:14) 말라기서를 보면 장차 엘리야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왔던 엘리야가 또 온다고 했기 때문에 윤회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윤회설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할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적 윤회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견해입니다.

4. 불신앙의 세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마 11:16-19)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칭찬을 해야 하는데 미치고 귀신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먹고 마셨습니다. 이처럼 반대로 살았으니 칭찬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먹는 것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이래도 저래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5. 말씀이 주는 교훈

이 말씀이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특징은 변덕이 죽끓듯 합니다. 두번째로 배역과 배역자의 역할은 감독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배역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세대가 아이처럼 하신 것을 책망하십니다. 영어에 칠드라이크(childlike)라는 단어와 칠디쉬(child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자는 아이들처럼 순진하다는 좋은 뜻이지만 후자는 어른들처럼 어리석다는 나쁜 뜻입니다. 이것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덕이 죽 끓듯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둘째로 배역에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때로는 배역이 마음에 안들어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로 현 세대가 어린애들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나쁜 점을 말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나쁜 점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

-1953·교회설립 40주년·1993-

금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현대는 옛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력이라도 지닌듯 우리로 지나간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신앙이란 이전 것을 되돌아볼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하기위해 또한 잊어져가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주간충현>에서는 만달에 1회 정도 중현교회40년 소사를 연재하려고 한다. <편집자>

❖ 중현교회 40년 소사(小史) ① ❖

부산에서의 김창인 조사

일제의 신사참배를 피해 다니다가 해방을 맞은 김창인 전도사는 평북, 황해도 등에서 교회를 세우며 활동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의 박해와 온갖 감시에 부딪히자 1948년 12월 3일 북한에서 극적으로 탈출, 월남한다.

그러나 끝이 터진 6.25동란으로 김 전도사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되고 그곳에서 그는 뜻을 같이하는 피난 성도들과 함께 1952년 6월 28일 동대신동 1가에 대지 90평을 구입, 72평의 교회당 신축(목조)에 착공하여 그해 11월 22일에 완공을 보게 된다. 이른바 부산의 동일교회이다.

빈주머니다시피한 피난민 성도들의 능력으로는 실로 피와 땀과 정성으로 이룩한 교회였다. 처음 시작할때의 어려움을 김창인 공로장로(당시 집사)의 증언으로 들어본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요. 금요일(6월 26일)에 윤수현, 이학주 집사님이 오셔서 좋은 곳을 한군데 보아 놓았다고해서 즉시 가서보니 좋은 곳이었더군요.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6

월 30일)에 와서 계약하기로 주인하고 약속했지요. 그때 내 생각엔 계약금도 없었으니 6월 29일 월요일에 동일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건축헌금을 하여 계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묘하시더군요. 그때 김 조사님(김창인 원로목사를 말함)은 초랑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계셨지요. 그런데 월요일이 되어 김 조사님이 오셔서 계약하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계약금이 없으니 월요일에 건축헌금해서 가려한다 했더니 136만원을 내놓아요. 초랑교회에서 106만원 현금해오고 당시의 사례금으로 받은 30만원을 다 내놓으면서 계약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로 가서 계약을 했지요." 이와같이 시작한 동일교회의 일꾼들중 대다수가 훗날 중현교회를 세우는데 큰힘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미 이때부터 우리 중현교회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전통이 세워졌는지 모른다.

"삼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371장>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창세기 1:31절 말씀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생각난다. 우리는 과연 이 아름다운 동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을까? 무참하게 파헤쳐졌고 아무렇게나 날리었고 더럽혀졌고 동장나 버렸고 짓이겨진채 오염투성이가된 산하를 보면서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까? 송구스러움 뿐이다.

타락된 인간들은 자원을 관리할 능마져 상실한 것이다. "인간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이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정의이며 슬픈 정의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죄 패이다.

자연속의 모든 생물은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나 인간만은 자연의 아름다움마저도 파헤친다. 생활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파괴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인간이 번성하면서 부터는 더욱더 파괴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경 파괴의 원인을 성경에 돌리는 무죄한도 있다. 창세기 1: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인간에 의한 파괴를 합리화 시키고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

* 칼럼 / 역삼동에서 * 그리스도인의 환경관리

전 성자
(원사·제15교구)



이 문화명령은 발전과 발달, 개발과 개선을 인간이 마땅히 해야할 일로 알아서 박차를 가하게 했고 산업제임주의에 빠져게 됐다는 것이다. 그결과 자연 훼손과 자원고갈을 가져오게 했다는 누명이다. 인간에 의한 발달은 어느 것 하나 환경을 아름답게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주장은 옳지 않다. 명령속에는 자연도 생육시켜야 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비판적인 미래가 예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 오히려 보존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며 사명인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범지구촌적인 관심사이며 지구촌장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예고된 채난이다. 세계 모든 사회운동의 중심과제는 환경에 모아지고 있으며 기독교도 윤리적인 관심을 여기에 쏟고 있어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소비자운동의 주된 내용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우리의 바램만으로도 끝낼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 한사람 한사람 마다 서로를 위해 모범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해 관리하는 노력을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할 것이다.

<주> 간충현)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장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 충현교회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애정과 깊은 사랑으로 <주간충현>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충현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면서 1993년의 <주간충현>의 기본 편집방향을 알려 드립니다.

1면

1) 뉴스 :

기사작성 원칙에 충실하되 특별히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의 중요성을 공감토록 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소식 중 전 기독교인이 동참해야 하는 일과 교단의 일중 중요한 것과 중현교회가 관련된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내의 행사 또는 교회 밖의 삶 등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적인 신선한 자극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3) 카메라 초점 :

많은 글보다 한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게재하되 사진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분명한 사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4) 이달의 게시판 :

매달 첫주에는 그 달의 행사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함으로 자신의 월간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원로목사 및 당회장 동정 :

원로목사 및 당회장의 동정을 알려 드림으로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간충현> 1면 게재 원칙 -

- ① 전 교회적 행사 및 이와 관련 된 내용
- ② 부분 행사라도 전 교인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
- ③ 전 교회적 광고 (예, 공동의회 소집 등)
- ④ <주간충현> 편집실 광고
- ⑤ 돌출광고(Box)는 위와같은 경우 외에는 전면 금하라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면

1) 충현강단 :

당회장 목사의 수요일예배 강해 및 기타 성경강해를 싣되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름다운 편집을 하겠습니다.

2) 기타 당회장에 대한 고정란 : <한국일보>에 게재되는 광고적 신앙 칼럼 '길' 등

3면

1) 칼럼/역삼동에서 :

고정 '칼럼'란으로 분기별로 칼럼위원 3~5명을 선정하여 집필토록 할 계획입니다.

2) 독자식 :

독자들의 참여란으로 간증, 수필, 시, 제언 등과 또한 한 시의에 적절한 계몽, 교육적 내용(예, 성찬의 자세, 감사에 대하여 등)으로 편집하겠습니다. 또한

매 월별로 책소개, 신앙상담, 중현교회 40년 소사, 등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4면

1) 알려드립니다 :

4면 전체의 제목으로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각 담당 통신원이 보내온 원고를 중심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통신원을 지정하

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지금 :

부서 및 각 모임을 소개하는 자리로 부서 전체를 소개하기 보다는 그 부서 및 모임의 특색 및 활동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3) 물맷돌 :

편집실에서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4) 장로·교역자 동정 :

원로장로, 시무장로 및 교역자의 동정을 알림으로 서로의 교제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싶습니다.

● 원고 마감 : 수요일 저녁예배 후까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책임있는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 이장은 평상시의 기본적인 편집방향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8면으로 증편할 수 있습니다.

● 출판국에는 출판국장 조선근 장로와 출판국 위원으로 허대선·송환창·박영식 장로가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출판국 전체의 운영과 <주간충현>에 대한 편집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위하여 이형수 집사(편집장)와 이종희 선생(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출판국에서는 <주간충현>, <충현의 만나>, <주보> 등을 맡아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과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의 설교, 강해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의 글

1993년 기도하는 한해

김 경 숙

〈집사·제12교구〉

“기도의 위력” 무엇인가 굉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말이다.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가진 후 곧이어 유창무 목사님이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학교가 개원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 40-50명이 모여 기도회에 대해 공부를 한 뒤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모임이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같이, 홍해를 건넌 모세와 같이, 예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음에도 공기의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했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와같은 환경속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던 것 같이 한주일에 하루를 구

별하여 기도원을 찾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 안타까운 일은 이러 귀한 모임에 너무 적은 숫자가 참가하는데 있다. 홍보가 부족했던 탓일까? 기도원이 없는 교회도 수 없이 많은데 1시간도 채 안걸리는 거리에 넓은 기도장소를 구비한 기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이 소중함을 알고 충현기도원을 한번 찾아 봄이 어떨까 제의해 본다. 특별히 급원은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기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자 기도를 배우러 기도원을 찾는 발걸음들이 날로날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본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앞에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떠났다. 현재 한국에서만도 수천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복음의 최일선에서 영적전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이러한 차에 우리의 갈증을 시원히 해소해줄 한권의 책이 나와 이에 소개하고자한다. 원제는 Love Your Local Missionary란 책인데 한국어로는 “선교사를 돕는 최선의 방법”으로 번역되어 두란노 세원에서 출판되었다.

이책에는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교의 중요성, 선교사의 우정관계,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년간의 선교현장에서의 경험과 실무

를 지닌 4명의 필진으로 구성된 본 책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거나 앞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라 할 수 있다. 현재 영국의 All Nation Christian Colleg에서 강의중인 마틴 골드스미스가 그 특유의 필체로 성격적 기초위에서 왜 선교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복음주의 동맹선교부의 책임간사인 스탠리 데이비즈는 오늘날의 선교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O. M. F의 이사인 존 윌리스는 은퇴하고 다시 돌아올 선교사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앤 타운센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책소개◆

선교사를 돕는 최선의 방법

김 양 흡

〈목사·전교위원회 지도 22교구〉

만약 전쟁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보급품과 탄약들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패배로 돌아갈 것이다. 현재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서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보급되길 바라는 바이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맘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네
주님과 함께 할때에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기쁜 일 만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슬픈 일 당한 때도
주님을 찬양해
주님과 함께 할때에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 주시니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 주시니”

◆독자의 글◆

내가 군생활 중 즐겨 불렀던 찬양 ("성령에 취한 자")

홍 문 석
〈청년2부 회원〉



위의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은 내가 군생활 중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동시에 느끼며, 부르던 찬양이다. 추운 겨울날 작업때문에, 모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고 혼자 행정반에 남아 쌓인 업무를 처리하며, 수없이 부르던 찬양,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나의 마음속에는 샘솟는 듯한 기쁨이 생겨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훈련돼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의 삶이 결실로 갈 수 없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모범적인 군인으로 상사에게 인정받게 해 주시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교회활동

이 보장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본부교회 홍순영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데살로니가 전서 5:16, 17, 18절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고, 에베소서 5:16, 17, 18절은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취하지 말라’ 이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술취하지 않은 사람이다. 술취하지 않는 길은 성령

에 취하는 길 뿐이다. 성령에 취할 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이다(엡 5:19).

성령에 취함으로 심령의 새노래를 간직한 자는 별도의 스트레스해소책이 없어도 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고,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게되는 능력의 원천이 새노래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홍 목사님의 말씀에 참으로 공감하면서, ‘술에 취한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취한자’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데 더욱 힘써,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듯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교회학교 주보에서 ●

용달샘

우리에게는 부모나 친구, 친척들과 같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거물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의 관계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판단에 비추어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 나의 행동보다는 세상의 행동에, 자신의 결정보다는 타인의 결정에 신경을 곤두세워 자신을 바라볼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성장해 가고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맥없이 변해 버릴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판단은 자기 내면에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아닐까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했습니다.

